창사 66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제8673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음력 3월 17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시 6개 읍·면 소음 피해 '제로'

운남 12.3㎢·망운 5.8㎢·현경 0.9㎢ 등 3개 면만 소음 영향
무안 면적의 4.2%…최적지는 무안공항 활주로와 1.9㎞ 이격
광주시·전남도, 소음대책 토론회…분석 결과·지원 방안 발표
김산 군수 입장 변화·무안군민 찬반 여론 추이 귀추 주목

소음·주변 지역 발전 토론 지난해 12월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항 이전 추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24일 오후 무안군 초당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애리 기자

광주 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할 경우 소음 예상(85웨클 이상) 지역 면적은 19㎢로 무안군 전체 면적(450.4㎢)의 4.2%(19.0㎢)에 불과한 데다, 무안군내 9개 읍·면 중 6개 읍·면은 소음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3면

반면,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한 운남면(35㎢)의 소음 영향 예상 면적이 12.3㎢(35.1%)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고, 인접한 망운면(19.1㎢ 중 5.8㎢, 30.4%)·현경면(55.4㎢ 중 0.9㎢, 1.6%)도 일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측됐다.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무안지역 소음 피해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군공항 이전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김산 무안군수의 입장 변화가 이뤄질지, 그리고 찬·반이 팽팽한 무안지역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무안군 무안읍 소재 초당대학교 국제회의관에서 열린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양철수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 피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군공항 이전 시 시설 배치 대안으로 3개 방안이 제시됐다. 무안국제공항의 기존 활주로와 평행 이격거리는 1안 880m, 2안 1천311m, 3안 1천900m로 이 가운데 미국연방항공청(FAA) 시설 기준(민간 활주로와 독립 평행 활주로 최소 간격 1.31㎞)에 적합한 3안이 최적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3안의 기존 활주로 북쪽끝단 이격거리는 0m로 해안 매립 최소화 및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고, 서쪽 해안 위주 장주 비행으로 소음 최소화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군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할 경우(시설 배치 3안 기준) 무안지역 소음 영향(85웨클 이상) 예상 지역은 19.0㎢로 무안군 전체 면적의 4.2%가 소음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85웨클은 광주 군공항 소음 영향 보상 기준에서 가장 낮은 제3종(보상액 월 3만원) 구역의 기준 수치다. 제1종(보상액 월 6만원) 구역은 95웨클 이상, 제2종(보상액 월 4만5천원) 구역은 90-95웨클 이상이다.

무엇보다 무안읍·일로읍·삼향읍·몽탄면·청계면·해제면 등 6개 읍·면은 소음 영향권에 포함되는 면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 영향을 받는 지역(통합공항 기준 반경 7㎞ 일부 지역)은 운남면(12.3㎢)과 망운면(5.8㎢), 현경면(0.9㎢) 등 3개 면으로 총 19.0㎢ 면적이다. 현재 군공항이 있는 광주지역 소음 영향 면적은 40.21㎢에 달한다.

광주 민간·군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될 경우 통합공항의 해안 입지로 소음 영향권 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3개 면 19.0㎢ 외 통합공항의 소음 영향권 21.21㎢는 공유수면(해상)이다.

지난해 12월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항 문제 5개 항 공동발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전남도·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이 주관했다.

광주연구원이 소음 영향 분석 및 대책 등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전남연구원은 무안국제공항 주변 지역 발전 구상을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나주몽 전남대 교수, 김제철 한서대 교수,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허태성 유신 부사장, 박영환 나노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 대표이사가 민간전문가 패널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참석 무안군민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초당대학교 입구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토론회 참석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군공항 이전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집회신고가 초당대 입구로 한정돼 범대위가 토론회를 저지하거나 강 시장의 진입을 가로 막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재정 기자

姜시장 "통합공항 추진 여부 빨리 결론내려야"

"광주·전남·무안 다 살릴 일…무안이 안받겠다면 안할 것"
"해결 못하고 갑론을박할 시간 없어" 플랜B 가능성 시사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광주와 전남, 무안을 다 살릴 수 있는 통합공항을 진짜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길지 않은 시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무안군과 무안군민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초당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통합되는 통합공항으로 가는 것은 광주 만을 위한 길도 아니고, 무안과 전남 만을 위한 길도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강 시장은 "무안군수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고 있다.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치 광주가 광주 만을 위해서 군·민간공항을 어디다가 처분하는, 떨이 넘기는 모습으로 무안군수나 무안군민이 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무안이 결사적으로 죽어도 광주 민간·군공항을 안 받겠다면 제 계획을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며 "무안군수가 제 생각을 들어보고 끝내 동의할 수 없다면 저도 저의 갈 길을 가야 될 것 아닌가. 광주시민들도 원하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왔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논란만 일으켜서 시간만 보낼 수 없다"고 '골든타임'이 많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강 시장은 "광주 군·민간 공항에 대해 광주시민들의 생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공항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광주·전남을 상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무안군수와 무안군민이 어떤 일이 더 좋은 일이고, 광주도, 전남도 좋고, 무안도 좋은 일인지 진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김영록 지사와 합의를 했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랜B'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해결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갑론을박 시간만 보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대구통합공항, 새만금공항, 청주공항 등이 정부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 이런 냉정한 현실에서 광주와 전남, 무안을 다 살릴 수 있는 통합공항을 결론을 내려서 통합 하기 싫다 그러면 저도 과감하게 안하겠다"고 또 다시 '플랜B'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달빛철도를 놓으면서도 공항을 빨리 만들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움직인다. 부럽다. 내년에 착공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샘도 난다"며 "무안으로 통합공항이 가는 게 맞는 지에 대해 (무안에서) 답을 주시면 따라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Today

부산으로 구의원 연찬회 '눈총' 6면
'반쪽 5·18'이 오월정신인가? 6면
아열대작물 재배농가를 가다 9면